

CNNGO가 소개하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50선

정리: 손승권



50 beautiful places to visit in Korea¹⁾

As these spectacularly photographic spots show, if you've only been to Seoul, you're missing out big time

Some 25 million South Koreans – about half the population – travel abroad at least once a year, but it's safe to assume that most haven't seen all the beautiful sights within the country.

Seoul only takes up a mere 0.6 percent of South Korea's territory: here are 50 stunning photographs from the other 99.4 percent of the country that are all worth a visit.

Here are the flowery spring landscapes, sandy beaches, rocky mountains and quietly stunning historic sites on your new Korean travel bucket list. And just in case you were wondering, they are in no particular order. Feel free to add some suggestions of your own in the comment box at the end of the article.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50선

아래와 같은 환상적인 사진들이 보여주듯이 당신이 오직 서울에만 머물렀다면 이것을 볼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약 2500만명(대략 인구의 절반)의 한국인들이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외국 여행을 가지만 그들중 다수가 한국내의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고 보아도 됩니다.

서울은 단지 한국 영토의 0.6%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 여기 99.4% 영토에서 방문할 가치가 있는 50곳의 멋진 사진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한국여행의 버킷리스트에 올릴만한 꽃피는 봄 풍경, 모래사장, 바위산과 고요하고 멋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리스트는 특별한 순서없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기사의 끝부분에 댓글 상자에 자신의 제안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ttp://www.cnngo.com/seoul/visit/50-beautiful-places-visit-korea-873093>

목 차

1. 제주 성산일출봉	6	25. 남원 광한루	31
2. 태안 꽃지해수욕장	7	26. 섬진강 기차마을	32
3.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8	27. 청산도	33
4. 부산 광안대교	9	28. 한라산	34
5. 진해 경화역	10	29. 함양 다락논	35
6. 창녕 우포늪	11	30. 지리산 뱀사골 실비단 폭포	37
7. 신안 증도염전	12	31.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38
8. 설악산 신선대 공룡능선	13	32. 영산강	39
9. 울릉도 해안도로	14	33. 과주 심학산 꽃밭	40
10. 제주 섭지코지	15	34. 황매산 철쭉축제	41
11. 경주 보문정	16	35. 여주 신륵사	42
12. 제주 우도	17	36. 대둔산 구름다리	43
13. 합천 해인사	18	37. 해운대 해수욕장	44
14. 지리산 천왕봉	19	38. 옥천 용암사	45
15. 담양 죽녹원	20	39. 태백산 설경	46
16.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22	40. 양동 한옥마을	47
17. 진해 여좌천 벚꽃길	23	41. 남이섬	48
18. 보성 녹차밭	24	42. 순천만	49
19. 경주 불국사	25	43. 인제 빙어축제	50
20. 대관령 양떼목장	26	44. 울산바위	51
21. 청도 소싸움 축제	27	45. 화성 방화수류정	52
22. 제주 협재해수욕장	28	46. 무주 남대천 쉼다리	53
23. 경주 안압지	29	47. 고창 동림저수지	54
24. 화순 세량제	30	48. 아침고요수목원	55
		49. 진주 축석루	56
		50. 삼광사 연등축제	57

지역별 색인

제주권

제주 성산일출봉	6
제주 섭지코지	15
제주 우도	17
제주 협재해수욕장	28
한라산	34

경기, 강원권

설악산 신선대 공룡능선	13
대관령 양떼목장	26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38
파주 심학산 꽃밭	40
여주 신륵사	42
태백산 설경	46
남이섬	48
인제 빙어축제	50
울산바위	51
화성 방화수류정	52
아침고요수목원	55

충청권

태안 꽃지해수욕장	7
대둔산 구름다리	43
옥천 용암사	45

전라권

신안 증도염전	12
담양 죽녹원	20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22
보성 녹차밭	24
화순 세량제	30
남원 광한루	31
섬진강 기차마을	32
청산도	33
영산강	39
순천만	49
무주 남대천 섶다리	53
고창 동림저수지	54

경상권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8	청도 소싸움 축제	27
부산 광안대교	9	경주 안압지	29
진해 경화역	10	함양 다락논	35
창녕 우포늪	11	지리산 뱀사골 실비단폭포	37
울릉도 해안도로	14	황매산 철쭉축제	41
경주 보문정	16	해운대 해수욕장	44
합천 해인사	18	양동 한옥마을	47
지리산 천왕봉	19	진주 축석루	56
진해 여좌천 벚꽃길	23	삼광사 연등축제	57
경주 불국사	25		

1. 제주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5,000여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생긴 것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돋이 광경이 특히 유명한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린다.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2. 태안 꽃지해수욕장



안면읍에서 4km정도 떨어진 이 곳은 드라이브를 하거나,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구경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특히나 할미바위와 할아버지바위라고 알려진 두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어 특이한 광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신라시대에 유명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이 되어 할미돌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돌아와 그녀의 사랑에 감동해 바로 건너편에 자리잡아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 위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4리

3.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남해군의 서쪽에 위치한 다랭이마을은 100개가 넘는 계단식 논과 밭으로 유명해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 위치: 경남 남해군 남면 흥현리

4. 부산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다리로도 알려진 광안대교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다리로 산과 해변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다리를 직접 건너기는 힘들지만 해가 지면 어디에서나 반짝이는 불빛들로 이미 부산의 명물이 되었으며 무려 100,000개가 넘는 색색 깔의 불빛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다이아몬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5. 진해 경화역



이 작은 기차역은 해마다 관광객들과 아마추어 사진가들로 붐비는 곳이다.

수많은 벚꽃 들이 분홍색 샤워를 일으키며 기차가 오는 순간에는 마치 벚꽃잎 터널을 만들어 동화와 같은 분위기를 선사한다.

여좌천(이 목록의 17번)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코스이다.

▷ 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6. 창녕 우포늪



총 2,314km²의 우포늪은 한국에서 가장 큰 늪이며 그 크기는 여의도의 세 배 정도이다.

1억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곳은 1500여 종의 동식물의 고향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도 대다수이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늪을 구경할 수 있으며 낮게 나는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도 있다.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7. 신안 증도염전



송나라 시대의 보물들이 발견된 이 섬은 깨끗한 바닷물과 예쁜 해변 그리고 염전으로 유명하다.

거대한 염전은 주변의 해양 동식물을 공부 하는데도 도움을 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슬로우 시티로 선정되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은 쉴 수 있는 여유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다.

▷ 위치: 전남 신안군 증도면 전남 신안군 증도면

8. 설악산 신선대 공룡능선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체력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이상의 등산 실력을 길러놓아야 한다.

공룡의 등을 닮았다하며 공룡능선이라고 일컬어져 왔지만 설악산의 신비로운 안과 밖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오르기가 만만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경로인 공룡 능선은 1,200 미터를 자랑한다.

▷ 위치: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9. 울릉도 해안도로



신비의 섬 울릉도는 서울 시민들이 주말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신비한 바위들과 해변 그리고 절벽은 해안도로를 더욱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어 다시 한번 발길과 눈길이 가게 하는 곳이다. 두세 번 방문해도 그 느낌과 신비로움이 늘 새로운 곳이다.

▷ 위치: 경북 울릉군 울릉읍

10. 제주 섭지코지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볼 것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지 말고 방문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섭지코지이다. 고요함과 로맨틱한 풍경으로 유명한 곳으로 유채꽃이 만발하기도 하고, 최고의 사진 명소로도 자리 잡았다.

이 목록의 1번인 성산일출봉을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섭지코지이다. 최초의 한류드라마로 알려진 송해교, 이병헌 주연의 '올인'도 이곳에서 찍게 되면서 한류 팬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261

11. 경주 보문정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벽이 없는 박물관으로 한국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역사 도시이다.

보문정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느끼기에 완벽한 곳이다. 봄의 벚꽃부터 여름의 푸른 나뭇잎, 빨강계 변하는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눈꽃 송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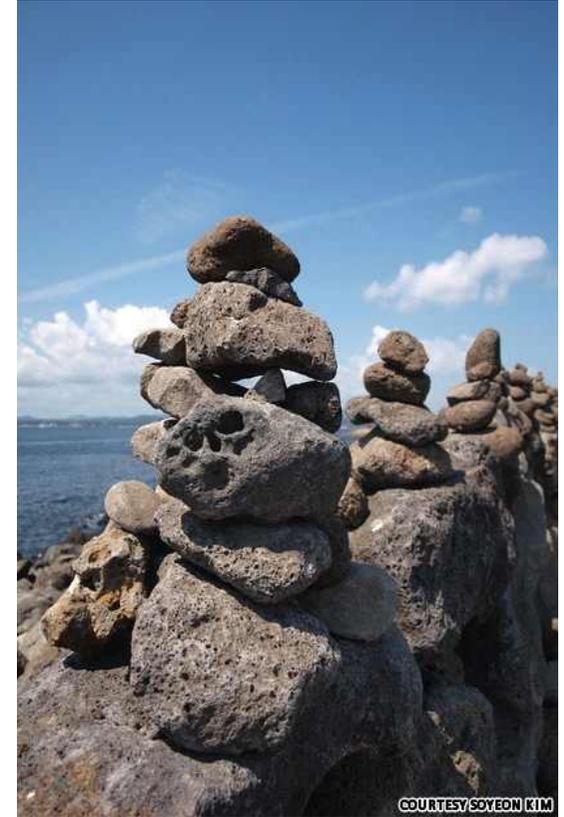
한국의 봄여름가을겨울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추천한다.

▷ 위치: 경북 경주시 보덕동

12. 제주 우도

제주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우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또 하나의 필수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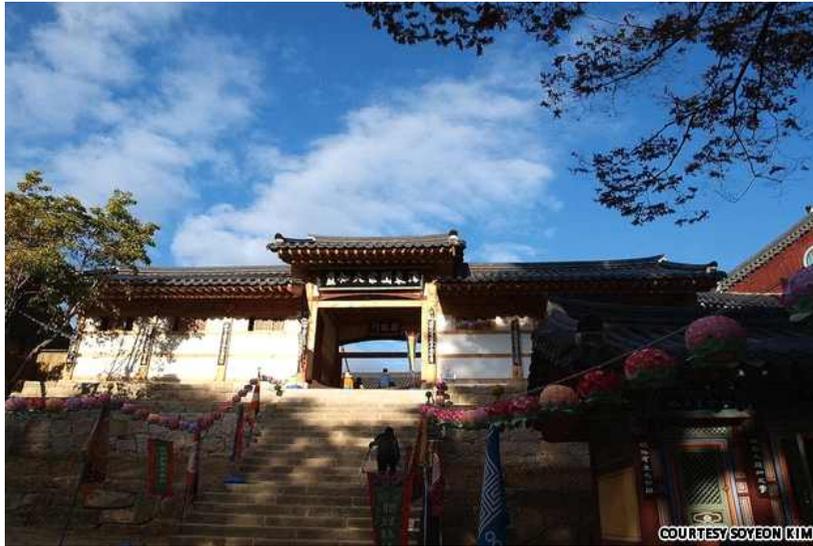
올레길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쿠터를 타고 해변가를 따라가거나 낚시 또는 잠수함 경험도 할 수 있다.



아,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기도록.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13. 합천 해인사



전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사에 보관중이다.
해인사 자체도 하나의 역사 유적으로 역사에 관심있는 관광객이라면 꼭 방문해야하는 곳이다.

▷ 위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14.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에 위치한 1,915미터의 천왕봉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산으로 등산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총 다섯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데 수많은 동식물의 고향일 뿐 아니라 일곱 개의 국보와 26개의 보물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많은 등산객들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천왕봉에 오르기도 하고,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오르기도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유이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한국의 산맥을 보기 위해서는 꼭 둘러보아야 하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 위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15. 담양 죽녹원

슬로우 시티 담양에 위치한 죽녹원은 수많은 광고와 영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추천하는 곳.

총 여덟개의 오솔길이 있어 여덟가지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죽로차도 맛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16.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집에서부터 공공기관, 그리고 아름다운 성곽들을 찾아볼 수 있는 민속마을.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실제로 아직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선시대의 생활상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17. 진해 여좌천 벚꽃길



다섯 번 째에 실렸던 진해의 기차역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진해의 여좌천도 빼놓을 수 없었다.

김하늘과 김재원 주연의 드라마 '로망스'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로거들에 의하면 낮보다 밤이 훨씬 아름답고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고 한다.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8. 보성 녹차밭



대한민국의 40% 정도 되는 녹차가 보성의 녹차밭에서 자란다. 무성한 녹차밭은 드라마나 광고 또는 영화의 촬영지로 애용되어 왔으며 사진작가들의 명소로도 알려져 온 곳.

물론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삼겹살처럼 녹차와 관련된 음식과 물건들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 때문이다.

매해 5월에는 녹차 축제가 열린다.

▷ 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9. 경주 불국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사찰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현장이 아닐까?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등으로 아직까지도 신비로움을 갖추고 있는 한국 최고의 역사 유적지이다.

▷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20. 대관령 양떼목장



한국에서 유일한 양떼목장인 대관령 양떼목장은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변신한다.

동화속 그림같은 풍경을 제공하며 주변에는 최고급의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다.

▷ 위치: 강원 평창군 도암면 황계 3리 14-104 번지

21. 청도 소싸움 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50만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소싸움 축제이다. 130여 마리의 소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미술 행사, 로데오 행사 그리고 마술 축제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소싸움이라는 행사가 부담스럽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면 낙대폭포나 운문사 등을 방문할 수도 있다.

▷ 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22. 제주 협재해수욕장



흰 모래를 자랑하는 이곳은 가족 단위로 가기에 적합한 해변이다. 깊이는 1.2미터 정도로 너무 깊지 않고 주변 소나무 숲 근처에서는 캠핑도 할 수 있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방문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 협재는 특히 전복과 소라로도 유명해서 해변 근처의 식당에서 먹는 해산물 체험은 필수 코스이다.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1 번지

23. 경주 안압지



이 인공호수는 1,500여년 전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 세 개의 건물들이 세 개의 인공섬에 세워져 있고, 작고 예쁜 연꽃들이 호수 주변을 꾸며주고 있다. 밤의 불빛들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

24. 화순 세량제



화순에 1969년에 지어진 저수지인 세량제는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포토제닉 명소이다.

봄이 되면 연분홍빛의 벚꽃과 초록의 나무들이 수면 위에 그대로 투영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 남원 광한루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동화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는 춘향과 몽룡이 사랑에 빠진 곳으로 1963년 보물로 등재되었다.

사진작가들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 위치: 전북 남원시 천거동 77-1

26.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이 버려진 기차역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관광객들은 짧지만 흥미로운 기차여행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면서 로맨틱한 기차역 주변을 거닐 수 있도록 했다.

▷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

27. 청산도



크기나 꽤나 작지만 청산도는 한국 최초의 슬로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하여 슬로길이라고 이름붙여진 곳으로 전체 11코스로 그 길이가 100리 정도에 달한다.

섬 전체가 하나의 전래동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숨겨진 명소.

▷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28. 한라산



한라산의 아름다운 눈꽃들과 고드름이야말로 한라산 눈꽃축제의 완벽한 배경이 되었지만 지리적 특성상 축제 기간 중 눈이 내리지 않은 이유 등으로 폐지되었다.

축제는 폐지되었지만 눈꽃들로 장식된 나무들은 그대로.

축제를 통해 즐기지 않아도 썰매를 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눈꽃을 즐길 수 있다.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29. 함양 다락논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다락논은 계단식 논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여름에 논에는 하늘이 비쳐지며 가을에는 수확 시즌을 맞아 주위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 위치: 경남 함양군 마천면



30. 지리산 뱀사골 실비단 폭포

지리산에 위치한 이 폭포는 현재 근처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곳.

아름다움에 반해 들어간다면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니 들어가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들어가도록.

▷ 위치: 전북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전북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31.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파주에 위치한 이 공원은 한국인들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소 무서운 주제긴 하지만 그 외에도 바람개비나 대나무 숲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기도 하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32. 영산강



한국에 아름다운 강가가 많지만 한강만큼이나 아름다움을 뽐내는 강이 바로 영산강이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132 킬로미터의 자전거 길도 마련되어 있어 강가를 따라 담양에서부터 목포까지 달릴 수 있다.

▷ 위치: 전남 담양군 용면 용소리

33. 파주 심학산 꽃밭



심학산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마치 모네의 그림을 보는 것과도 같다.

한국에서 양귀비를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곳으로 매해 6월 양귀비 축제가 열린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

34. 황매산 철쭉축제



1,108 미터의 황매산은 소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매년 봄마다 철쭉으로 눈부시게 변하는 곳이다.

황매산 철쭉 축제는 5월에 시작해 2주 동안 계속되며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위치: 경남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산 1번지

35. 여주 신륵사



강가에 위치한 신륵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사찰이지만 다양한 석탑과 종, 그리고 느티나무들로 다른 사찰에서 찾을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매년 1월이면 사찰과 주변 지역에 고구마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 위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

36. 대둔산 구름다리



대둔산의 묘미는 가을이면 색색 깔로 변신하는 나무들과 81미터의 금강 구름다리이다.

임금바위와 임석대를 잇는 금강다리는 등산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어 등산을 힘들어하는 등산객들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다.

▷ 위치: 전북 완주군 , 충남 금산군

37.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이지만 여름만 방문하면 아까운 곳이기도 하다. 매년 1월 북극곰축제가 열리며 여기서 방문객들은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겨울을 만끽하곤 한다.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중동

38. 옥천 용암사



552년에 지어진 이 사찰은 근처에 있던 용모양의 바위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괴되었고 결국에는 사라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가 신라가 무너지기 전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곳이다.

가을 아침에 둘러보면 사찰은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여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니 새벽에 일어나 꼭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자.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39. 태백산 설경



강원도는 아름다운 설경과 눈으로 유명한 곳. 그래서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도착하면 최고의 스키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하이원은 가장 높은 스키장으로 유명하며 훌륭한 설질로도 인기가 많은 곳. 매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태백산 눈 축제가 열리며 썰매, 스키, 눈썰매 그리고 눈싸움도 마련되어 있다.

▷ 위치: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40. 양동 한옥마을



조선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양동마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조금씩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찰스 왕세자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기 시작한 곳이다. 일단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조선시대의 분위기와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마을.

▷ 위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41. 남이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관광객들은 그보다도 메타세콰이아 길을 걷거나 드라마 '겨울연가' 배용준과 최지우가 거닐었던 장소들을 재현하고 싶어 방문한다. 드라마는 끝난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관광객들과 한국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1940년대까지만 해도 남

이섬은 섬이 아니었다. 청평댐이 지어지면서 비로소 섬의 모습을 갖추었다.

▷ 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42. 순천만



세계에서 가장 큰 만 중 하나인 순천만은 다양한 동식물과 한국에서는 가장 큰 갈대밭을 자랑한다. 순천만 갈대 축제는 매년 10월에 열리지만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162-2

43. 인제 빙어축제



인제 빙어 축제는 매년 겨울에 소양강 근처에서 열리며 수많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겨울과 눈, 그리고 빙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솔로도 방문할 수있다!

낚시를 즐기지 않는다면 잡힌 빙어를 먹는 것에 도전해보자. 생각이 바뀔지도?

1월 28일-2월 5일 www.injefestival.co.kr

▷ 위치: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44. 울산바위



봉우리가 여섯 개인 울산바위는 큰 바람이 불면 산이 먼저 울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알려져 있다.

울산바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설은 금강산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설악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이유야 어찌됐건 꼭 방문해야할 장소라는 것은 매한가지.

▷ 위치: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45. 화성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은 화성을 축조할 때 그 성곽 위에 꾸며졌던 정자와 누각 가운데 하나.

디테일이 정교한 건물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한국 전통음악과 시 그리고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6. 무주 남대천 섶다리



섶다리는 본래 나무 잔가지 등을 이용해 가교를 놓는 것이다. 이 섶다리는 사람들이 남대강을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초겨울부터 여름까지 사용하다가 장마가 오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다.

이제는 섶다리의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 이 곳에서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린다.

6월 8일-16일 firefly.or.kr

▷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47. 고창 동림저수지



매해 20만여 마리의 쇠오리들이 이 지역에 날아드는데 이 아름답고 보기 드문 경관은 2004년에 철새의 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1935년에 지어진 저수지는 낚시로도 인기가 많은 명소이다.

▷ 위치: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48. 아침고요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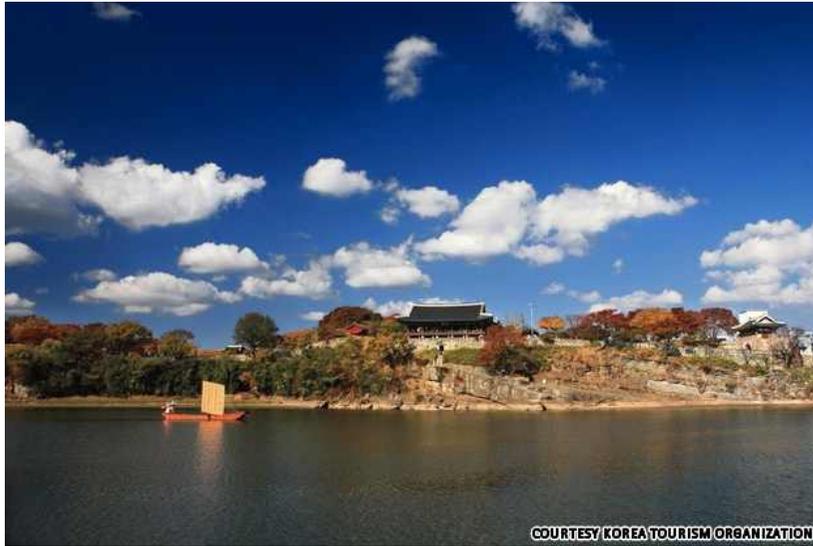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에 위치한 수목원으로 원예학 교수가 처음 설립했다. 20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진 수목원은 총 5,000여 가지의 식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3월 1일까지 루미나리에를 선보인다.

루미나리에를 선보이고 있는 현재 수목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루미나리에에는 해가 지면 꺼진다. 루미나리에가 끝나면 수목원은 오전 8:30부터 운영된다.

티켓 가격은 주말과 휴일에는 8,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평일에 7,000원, 12월부터 3월까지는 6,000원이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 255번지

49. 진주 축석루



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누각은 눈개가 몸을 던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누각에서 절벽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남강의 아름다움에 취해 뛰어내리지는 말도록.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3-1

50. 삼광사 연등축제



매년 석가탄신일이 되면 부산의 삼광사에서 아름다운 연등축제가 열린다.

사찰 전체가 셀 수 없는 연등으로 장식되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자랑하는 연등도 볼 수 있는 기회.

▷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